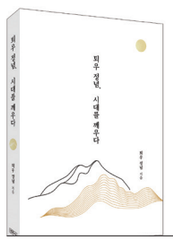
# AI시대, 화엄 세상을 꿈꾸다



퇴우정념, 시대를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민족사
1만8500원

**디지털 대전환과 불교 역할 모색**
**이웃 보듬는 '세계시민보살' 제안**
**"용기 있는 리더십이 새봄 열 것"**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사진 제공=민족사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는 보살, 비닐 한 장이라도 덜 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깨어 있는 '세계시민보살'이야말로 21세기 불교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22년간 월정사 주지를 맡아 오대산 수행 전통을 일신하고 현대적 비전을 제시해 온 정념 스님이 AI(인공지능) 시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스님은 최근 펴낸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에서 인간 소외와 양극화, 노동의 위기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시선으로 성찰했다.

정념 스님은 이 책을 '새로운 구법여행'이라 규정한다. AI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아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물음에 답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책은 총 7부로 구성됐다. 1부와 2부에서는 AI 대전환과 신자유주의 문명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모색한다. 먼저 스님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창조'는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구도(求道) 본능이자 궁극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으로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시간을 '수행'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찰은 그 전환을 이끄는 중심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화엄사상의 핵심인 상호연결성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시민보살'이라는 새로운 수행자상을 제시한다. 스님은 "육체의 노동을 내려놓은 두 손으로 이웃의 아픔을 다독이고, 일에서 해방된 맑은 머리로 예술과 철학을 논하며, 텅 빈 가슴을 명상과 참선으로 채워 나가는 삶. 이것이 AI시대 인간의 새로운 일과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문명의 숲을 이룰 것"이라고 제언한다.

더 나아가 AI시대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문명 창조의 기회로 바라본다. 불교의 지혜를 디지털 언어로 전환해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다. 정념 스님은 "위대한 대전환의 선두에 서서 사부대중을 희망의 미래로 이끄는 것이 이 시대가 리더들에게 부여한 가장 숭고한 소명이자 거룩한 불사"라며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리더십이 종단 전체의 새로운 봄을 열 것"이라고 말한다.

책 후반부에는 2004년 월정사 주지 취임 이후 수행과 문화, 환경, 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님의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를 기록했다.

정념 스님은 이 책과 함께 지난 30년의 수행과 원력, 문화불사와 사회적 실천을 정리한 〈오대산문 수행일지: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전 3권)도 출간했다. 오는 6월 19일 오후 5시에는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출간기념회를 열고 책의 의미와 향후 행보 등을 밝힐 예정이다.

#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



생의 모닥불
능행 스님
김영사
1만9800원

**30년간 죽음 배웅한 능행 스님**
**삶 위로한 단상 150여 편 수록**

불교 호스피스 선구자 능행 스님(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이 30년간 수천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얻은 깊은 통찰을 담아 〈생의 모닥불〉을 펴냈다.

이 책은 능행 스님이 타인의 죽음을 마주한 무거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한 단상을 모아 엮은 기록이다. '능행 스님이 노래하는 가장 서정적인 생의 찬미'란 부제처럼 '끝이 있기에 더 소중한 것들'을 관조한 150여 편의 시와 산문을 담았다.

스님은 이 책에서 "살아 있는 순간과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라면서 독자들에게 "온전히 내 뜻대로 숨 쉴 수 있는 지금, 단 한 번뿐인 삶을 아낌없이 껴안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부한다. 나아가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서럽고 아픈 삶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밝은 삶을 배워 실천하게" 해 달라는 바람을 전한다.

아울러 "인생이란 잠시 들렀다 가는 길"이며 "부귀도 명예도 잠시뿐"임을 일깨운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지금 상처와 괴로움이 '연꽃을 피우기 위한 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웃고 사랑하는 따뜻한 날들을 누리길'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복의 씨앗이 되는 말을 건네며 "저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마지막 배"가 되어줄 조건 없는 선업을 지어가라고 다독인다.

오랜 시간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능행 스님의 글은 '남은 생을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에 답을 건네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눈부시게 살아갈 혜안을 '선물'할 것이다.

배희정 기자

# 관음보살의 비밀, 묘선 공주에 있다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여시아문
1만8천원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우리가 사찰 법당에서 마주하는 관세음보살은 대개 자애롭고 은은한 미소를 띤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인도 불교에서 관음보살, 즉 '아발로키테슈바라'는 남성이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온 이 성스러운 존재는 어떻게 동아시아에 이르러 자애로운 여성 보살 모습으로 정착됐을까?

이러한 궁금증에 답을 제시하는 학술 연구서가 나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인 경완 스님이 펴낸 〈묘선, 관음이 되다〉는 '묘선 공주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연구서다.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고 수정한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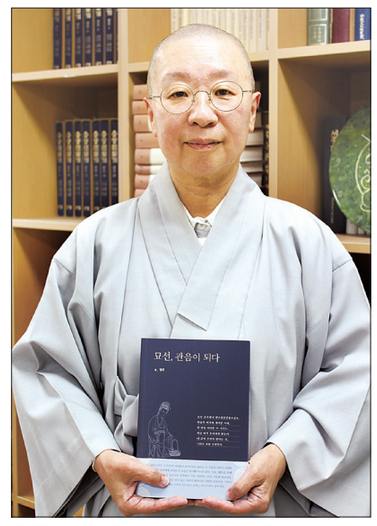
경완 스님은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중국의 천년 전 '묘선 공주'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면서 "이 서사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형성·확산되면서 관음은 점차 자애롭고 온화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 국내 첫 '묘선 공주 서사' 연구서

책은 인도에서 시작된 관음신앙의 기원과 중국 전래에 따른 변용 과정, 그리고 묘선 서사의 탄생과 출가부터 천수천안관음보살로의 현현에 이르는 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이 책의 핵심 소재인 '묘선 공주 서사'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출가를 택한 묘선 공주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불에 이르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담고 있다. 당시 묘선 공주의 출가에 대노해 그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리자, 공주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눈과 두 손을 베어 약으로 바치는 극한의 희생을 치른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마침내 천수천안관음보살로 화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완 스님은 "묘선의 출가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불효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비의 효로 승화한 '화쟁(和諍)'이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몸을 바쳐 아버지를 구하는 서사는 인도의 본생담에 나타나는 '사신공양(捨身供養)'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려 한 대상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숭고한 성격을 지닌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 경완 스님.

### 불교의 자비, 유교의 효 완성

스님은 "묘선의 관음 고사가 민간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건 없는 사랑이자 무한한 용서인 '자비'에 있다"며, "자신의 몸을 바쳐 아버지를 구함으로써 불교의 자비가 유교의 효를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사는 당시 중국 민간에 퍼져 있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부모를 치료했다'는 할고(割股) 민담 전통과도 맞닿아 있어 대중에게 큰 설득력을 얻었다는 게 경완 스님의 주장이다. 즉, 사람들은 진정한 효도란 불교적 자비의 실천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이 지점에서 인도에서 온 보살은 '효녀이자 보살'인 묘선 관음으로 동아시아 불교계에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다.

### 수행 주체로서의 여성

특히 경완 스님은 여성으로서 수행과 성불의 주체가 된 의미에 주목했다. 스님은 "묘선 공주 이야기는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수행하여 성불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며 "서사 속에서 여성은 단순한 구원의 대상이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의 주체가 되어 최고의 보살 경지에 이르고, 열반 후에도 능동적으로 행화(行化)를 이어가는 존재로 격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경완 스님은 방대한 문헌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특히 북송 시대인 1100년에 처음 새겨진 '향산대비보살전(香山大悲菩薩傳)'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주목된다. 이 비문은 북송의 장지기가 지은 것으로, 스님은 "송대 이후 원대에 중건된 비문으로 유일하고 공인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묘선 고사는 이후 송말 원초의 여성 문학가 관도승에 의해 〈관세음보살전략〉으로 정리되면서 인물과 사건의 전형을 완성했고, 후대 문학 변용의 탄생 토대가 됐다.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첫 완역

스님은 "이 서사의 탄생 배경에는 인도의 사신공양 서사,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삼십삼응신 사상, 그리고 중국 고유의 효행과 지옥 서사라는 세 갈래의 뿌리가 경이롭게 융합돼 있다"고 밝혔다.

천년 전의 묘선 공주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경완 스님은 "묘선 공주 서사는 극한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성숙해가는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현대인은 수많은 가치 충돌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지만, 묘선 공주는 고를 직시하는 것의 연장인 '화쟁'의 지혜로 이를 통합하고 자비가 수행의 결과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책을 발간한 스님은 이 책이 학자이자 수행자로서의 '회향'임을 밝혔다. 또 "대중들이 책을 통해 관음의 전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서원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진실행(眞實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책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관음보살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한국 관음신앙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경완 스님은 내년 명대 소설로 발전한 관음 서사와 〈서유기〉 속 관음보살의 역할 등을 보완한 후속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엽 스님의 문학세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문학 연구와 일엽 스님 연구를 엮어낸 추가 연구서도 준비 중이다.

배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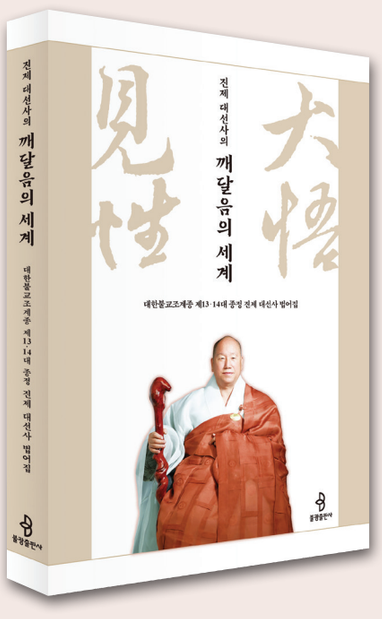

빈한한 삶을 진정한 풍요로 이끄는
자유로운 삶의 지름길

우리 불교의 살아 있는 선지식,
진제 대선사의
'참나를 밝히는 깨달음의 세계'!

"
지혜야말로 삶의 근본이며,
지혜를 잃은 삶은 빈한할 수밖에 없다.

화두를 참구하여 지혜를 밝히는 일은
곧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지름길이다.
"

진제 법원 지음 | 304쪽
23,000원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
대한불교조계종 제13·14대 종정 진제 대선사 법어집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
대한불교조계종 제13·14대 종정
진제 대선사 법어집

불교를 삶의 중심으로 옮겨 놓은
업業이라는 세계관

중국의 명문 대학 칭화대학교에서
한문 불교 원전을 끈질기게 파고든
활산 스님의 12년 연구 결실!

"
'업은 어떻게 생겨나고, 지속되며
어떤 방식으로 과보로 돌아오는가'

업을 깊이 이해하는 일은
불교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일이다.
삶과 신앙,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 움직인
업보 관념의 깊은 역사를 밝힌다.
"

활산 지음 | 양장본 | 584쪽
38,000원



활산 지음
北朝佛教業報觀念與社會教化研究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Karma and Social Edification in Northern Dynasties Buddhism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